

북한, 석유화학 촉매 생산 적극추진

북한 과학원, 상반기 공장가동 계획 ... 윤활유 · 합성수지 첨가제 관심

북한 과학원이 2004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산하 함흥분원에 석유화학공업용 촉매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1월5일자)는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화학공업과 인민경제 발전에 의의가 있는 촉매를 개발한 데 이어 생산하기 위해 정초부터 분원의 석유화학 및 메탄올연구소에 상반기 조업을 목표로 촉매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함흥분원의 석유화학 및 메탄올연구소는 최근 <윤활유 다기능 첨가제>를 비롯한 새로운 합성섬유(비날론)와 합성수지용 첨가제, 암모니아 합성 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가제 등을 잇달아 개발해 공업화를 위한 시험생산을 시도해왔다.

<Chemical Journal 2004/01/14>